

실내악 향연 ‘클래식 페스티벌’

문화공간 이룸, 22일 개최... 지난해 이어 박상욱·김지운·박진우 초청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 선사

전주의 대표적인 민간 클래식 공연장인 문화공간 이룸에서 수준 높은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사단법인 더문화와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운정)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클래식 페스티벌 2026’이 오는 22일 오후 5시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린다.

전주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 공연에서는 지난해 ‘클래식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피아니스트 박상욱,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운, 첼리스트 박진우가 다시 한자리에 오른다.

세 연주자는 지난해 섬세한 앙상블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공연 이후 재공연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사단법인 더문화는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 연주자를 다시 초청했다. 올해는 한층 성숙해진 음악적 교감과 완성도 높은 연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브람스의 ‘Intermezzo in A Major, Op.118 No.2’를 시작으로 클라라 슈만의 ‘Three



‘클래식 페스티벌 2026’ 포스터

Romances for Violin and Piano, Op.22’, 로베르트 슈만의 ‘Adagio and Allegro for Cello and Piano, Op.70’가 연주된다. 브람스와 슈만 부부의 작품을 통해 독일 낭만주의 특유의 서정성과 섬세한 감성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실내악 작품

인 ‘Piano Trio No.1 in D Minor, Op.49’가 무대에 오른다. 세 악기가 서로 대화를 나누듯 어우러지는 이 작품은 풍성한 음향과 다채로운 감정을 담아낸 명곡으로 평가받는다.

사단법인 더문화 대표는 “클래식 페스티벌은 매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써왔다”며 “지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세 연주자와 다시 만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브람스와 슈만 부부,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을 통해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여운을 선사하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이 열리는 문화공간 이룸은 연주자의 숨결과 섬세한 표현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전주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효자동 인근 주민들에게는 ‘걸어서 만나는 클래식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권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티켓은 전석 3만 원이며, 네이버에서 ‘클래식 페스티벌 2026’을 검색하거나 문화공간 이룸 홈페이지에 예매 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공간 이룸(063-223-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극단사람세상 연극 ‘높은 부부 이야기’

9월 4-13일 군산사람세상소극장서 공연

극단사람세상이 제85회 정기공연으로 위성신 작, 변아희 연출의 연극 ‘높은 부부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군산사람세상소극장에서 진행된다. 배우 최균과 추미경이 출연해 황혼의 나이에 시작한 사랑과 동행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높은 부부 이야기’는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두 사람이 뒤늦게 만나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변아희 연출은 이번 작품을 통해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사랑과 낭만을 포기하기 쉬운 관객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사랑을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조기 예매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1만8천원이며, 예매 할인은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만원이다. 전화와 카카오톡 ‘극단사람세상’, 한길문고를 통한 예매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9월 9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1만5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65세 이상 관객을 위한 ‘연세나청춘’ 할인도 마련돼 있으며, 1961년생부터 본인과 동반 1인까지 1만5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 명상 참가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직무대리 추정구)은 오는 25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하반기 ‘나를 위한 숲, 국악명상’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악명상은 국악의 소리를 중심으로 호흡과 이완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을 풀고, 있고 있던 감각을 깨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명상 안내자 숲의 그림자가 무아, 결을 듣다Ⅱ 소리로 흐르는 감각 명상을 주제로 진행한다.

하반기는 9월 4·5·18·19일과 10월 2·3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야외 잔디밭에서 총 6회 운영, 금요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7시에 시작하고 화차별 정원은 20명이며 참가비는 회당 1만 원이다.

6회 모두 참여하는 참가자는 참가비 50% 할인과 명상 키트를 제공하고, 가족 동반 참가자와 남원시민, 숙박 영수증을 소지한 여행객에게는 30% 할인이 적용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4회 창작소극장 IN 대학연극제

전북문화관광재단 · 창작소극장, 21일~9월 6일 청년 창작무대 3개 작품 공연

전북지역 대학 연극단체와 지역 공연단체가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과 실험을 선보이는 창작 무대를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추진하는 ‘2026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소극장은 오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제4회 창작소극장 IN 대학연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학연극제는 대학 연극단체와 지역 공연단체가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서로의 예술적 가능성을 공유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모두 3개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전북교사극단 두르륵의 ‘5호실의 고등어’는 8월 21일과 22일 공연하며, 전북대학교 기린극회의 ‘완벽한 사과’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전주대학교 MF의 ‘조선성’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공연된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이며, 자세한 사



항은 창작소극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부안청자박물관-한양여대, 청년도예가 육성 협약

부안청자박물관은 19일 한양여자대학교 세라믹디자인과(학과장 김동욱)와 청자 상감기법 전승 및 실무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도예 인재 유치와 전문 도예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동욱 세라믹디자인과 학과장 및 이동하·배용진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자 전문인력



양성 공동 협력사업 발굴, 도자산업 육성, 지역 청자 문화자원 공동 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 지역 도예가와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 국가유산 야행’ 2주차 행사로 열기 잇는다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수많은 인파를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2026 군산 국가유산 야행’ 1주차의 열기에 힘입어,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2주차 행사를 개최한다.

2주차 야행에서는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문화와 생활상’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가무형유산의 백미로 꼽히는 ‘줄타기 공연’ △박물관 앞 공간에서 펼쳐지는 야간 체험 공간 ‘빛의 놀이터’ △행사장 전 권역에서 군산 국가유산 관련 게임과 퀴즈로 진행되는 ‘모던 서프라이즈 퀴즈’



△친환경 재활용 소재인 양말목을 활용해 전통 가마니를 짜보는 ‘양말목 가마니 만들기’ △군산의 역사적 순간들을 한눈에 담은 ‘군산 근대역사사진전’ 등 다채로운 체험·전시 등 총 37개 프로그램이 원도심 일대 5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전주매일 캠페인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시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